

나주문화재단 출범 1주년... '생태 문화 창조 도시' 도약 본격화

문화 향유 확대, 로컬 콘텐츠 발굴, 시민 주도 문화생태계 구축 공연, 전시, 브랜딩 사업 성과 기반... 문화-관광-산업 연계 강화 시민과 예술가 함께 만드는 시민 주도 문화 자치 도시 실현 박차

나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찬동, 이하 재단)이 출범 1주년을 맞아 시민 문화 향유 확대와 로컬 콘텐츠 발굴, 문화 자치 기반 구축을 통해 '생태 문화 창조 도시 나주'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도약에 나선다.

2025년 3월 31일 출범한 이후 재단은 지난 1년간 지역 문화와 예술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 마련에 주력하며 시민 중심 문화생태계 조성에 힘써왔다.

재단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일상 속 문화 확산과 예술가 협력을 통한 창의적 문화환경 조성에 나서며 '문화가 도시의 중심이 되는 나주' 구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나선 재단... 일상 속 문화 확산

재단의 가장 큰 목표는 시민들의 일상에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에서 이제껏 체험하기 힘들었던 굽직한 공연과 전시를 유치하며 시민 문화 향유권 증진에 힘을 쏟고 있다.

출범 기념 공연 '명성황후 갈라콘서트'를 시작으로 2014년 제네바 국제음악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문지영 피아니스트의 리사이틀 등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명성황후 갈라콘서트'는 4일 만에 1500석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2월에는 나주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의 개관을 기념해 나현 작가

의 'PROJECT in NAJU'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향유 폭을 넓히고 있다.

■ 호남 중심지 나주 독창적 콘텐츠 발굴로 문화-관광-산업 연계 발전

재단은 나주만의 정체성을 살린 로컬 콘텐츠 발굴에도 주력하고 있다.

나주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시 문화 정체성 확보에 앞장서며 지역 문화가 관광을 이끌고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게 '로컬 브랜딩'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차 문화의 도래지이자 나주평야를 품은 농업도시의 문화 자원 활용 방안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차문화대전'에 참여해 야생차 문화관광 상품을 선보이고 조의다매 재발견을 주제로 '제31회 세계선차야회'를 개최하는 등 나주 고유의 문화 자산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또한 농업의 일상을 문화적 자산으로 확장한 '농부의 미학: 흙에서 숨 쉬는 사람들' 전시를 통해 농업도시 나주의 정체성을 문화콘텐츠로 구현했다.

아울러 지역 출신 소설가인 오유권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전시와 학술 행사 등 지역 콘텐츠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나주읍성 일원에서는 체류형 문화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나주읍성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시민 주체 문화 기반 조성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추진

재단은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 역량을 강화해 나주가 문화 자치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단순히 예술가를 지원하는 게 아닌 창조 계층을 육성해 지역 문화를 활성화해 나주가 '생태 문화 창조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지원한다.

재단은 지난해 지역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공동 창작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Round N'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예술인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형성에 나섰다.

시민이 문화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는 '나주공간' 사업을 운영해 시민의 일상에 문화가 자연스럽게 숨 쉴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 2026년 문화 향유, 로컬 브랜딩 강화, 창조 계층 육성 박차

올해는 출범 이후 1년 동안 쌓아온 기반을 바탕으로 문화 향유 확대와 로컬 브랜딩, 창조 인재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오는 6월에는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다룬 국내 창작 뮤지컬 '영웅'을 옛 화남산업에서 선보이고 하반기에는 세계 3대 소프라노로 손꼽히는 성악가 조수미의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단은 올해 개관을 앞둔 프랑스의 집(Maison de France)과 첫만남센터를 거점으로 삼아 지역 역사를 보유한 나주읍성에 체류형 문화관광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원도심의 매력을 전국에 알릴 계획이다.

또한 나주읍성 일대와 옛 화남산업 부지를 중심으로 체류형 문화관광 거점 조성 및 참여형 문화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취향살롱'과 같은 문화 콘텐츠 발굴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 나주문화재단 장기적 비전, '생태 문화 창조 도시 나주'

나주문화재단의 비전은 '생태 문화 창조 도시 나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거버넌스 네트워크', '지역자원 아카이빙',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향유 공연 전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로 도약 중인 나주의 도시 이미지에 맞춰 오스트리아 린츠에 위치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와 같은 예술과 기술, 에너지와 생태가 결합한 나주형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찬동 대표이사는 "출범 1주년을 맞아 많은 시민과 지역 예술가 등이 함께하며 생태 문화 창조 도시 나주 비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돕고 지역 문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농업박물관서 보리 등 곡물로 읽는 한국 식문화 조명 국립농업박물관 교류전 '탄수화물 연대기'... 7월3일까지 무료

전라남도농업박물관(관장 직무대리 최병남)이 오는 7월 3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국립농업박물관(관장 오경태)과의 교류전인 '탄수화물 연대기' 특별전을 열어 곡물로 읽는 한국 식문화의 역사를 조명한다.

전시는 국립농업박물관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개최 운영한 기획전시를 기반으로 구성된 두 기관과의 교류전이다. 보리·밀·옥수수 등 우리에게 친숙한 곡물을 통해 특히 광복 이후 한국 식문화의 변화와 의미를 살펴보는 전시다.

전시 구성은 탄수화물의 어제, 탄수화물의 대명사들, 탄수화물의 오늘과 내일, 총 3부로 구성됐다.

도입부인 프롤로그에서는 지난 세월 우리 사회의 변화와 식문화의 흐름을 영상으로 살펴봄, 전시 주제를 이해하도록 꾸몄다.

제1부 '탄수화물의 어제'에서는 농경의 시작과 함께 오랜 세월 우리의 주식으로 자리잡은 보리, 밀, 옥수수에 대한 기록을 정리했다. 높은 열량을 제공하는 탄수화물로 구성된 식량으로서 인류 생존을 지탱한 곡물의 역사를 조선시대의 고서와 근현대 자료를 통해 자세히 엿볼 수 있다.

주요 전시 유물은 보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농사직설'을 비롯해 조선시대 음식 조리법을 담은 '식미방', 근대기 식생활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조선 요리법', '새가정 요리선집' 등이다.

제2부 '탄수화물의 대명사들'에선 광복 이후 지난 세월 동안 보리·밀·옥수수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녔는지를 볼 수 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들어온 원조 밀가루 포대, 1970년대 정부의 농업기술 보급 정책을 보여주는 '봄바리 가꾸기', 옥수수 알을 분리하는 탈립기 등 당시 생활과 정책, 식문화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가 소개된다.

제3부 '탄수화물의 오늘과 내일'에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 곡물의 인식과 식문화 변화 흐름을 조명했다. 부족한 쌀을 대신하던 보리는 건강식 곡물로, 밀은 현대 식문화의 중심 재료로, 옥수수는 국민 간식이자 미래 식량 자원으로 자리잡기까지의 과정을 영상과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전시는 관람객이 더욱 흥미를 느끼도록 1970~80년대 인쇄물 콘셉트의 스탬프 체험과 낱말 퀴즈 등 체험 코너를 마련해 색다른 추억과 재미를 더한다.

전남도농업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교류전은 전남농업박물관과 국립농업박물관이 소장 자료와 전시 콘텐츠를 공유한 전시로, 향후 농업·식문화 분야 전시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전시 콘텐츠를 제공해 문화 향유를 확대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는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월요일 휴관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김명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주 국가유산 야행' 사전 참여자-동행상점 모집

체험·투어 등 12개 프로그램, 어린이·성인 누구나 선착순

광주 동구는 오는 24~25일 이틀간 5·18민주광장, 서석초등학교, 광주읍성 유허 등 국가유산 일원에서 열리는 '광주 국가유산 야행' 프로그램의 사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은 오는 6일 오후 1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어린이와 성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전 모집 프로그램 중

'남도의례음식장과 함께하는 흑백미식가', '지식가이드 투어', 광주야행 숙박패키지 '세 개의 밤'은 유료로 운영되며, '광주읍성 체험극 사또의 하루', '별들 미니이저 만들기', '어린이 해설사 투어', '서석초 옛날 교실 체험' 등은 무료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총 12개 프로그램이 사전 신청 대상으로 마련됐다.

'남도의례음식장과 함께하는 흑백미식가는 남도의례음식장 민경숙 명인이 직접 만든 전통 음식을 맛보며 퀴즈를 통해 광주의 무형유산과 음식문화를 이해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24일은 성인 20명, 25일은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유료 운영된다. '지식가이드 투어'는 재명석 등 옛 전남 도청 구본관 및 회의실, 광주읍성 유허 등

광주 동구의 대표 국가유산을 전문 가이드와 함께 깊이 있게 둘러보는 프로그램이다. 소규모 소통형 투어로 진행되며, 광주읍성 유허에서 시작해 비움박물관 관람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 밖에도 체험·공연·전시 등 광주 동구의 국가유산을 활용한 30여 개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 형태의 '야행화폐' 가맹점으로 참여할 동행상점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2일까지이며, 행사장 인근 상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가맹점은 방문객이 사용한 야행화폐 수량을 확인한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혜경 기자

보다나온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금이 있습니다

농지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